

## “호모 에루디티오” (성인교육학의 사상적 토대)

호모 에루디티오(Homo Eruditio)는 학습하는 인간, 혹은 배우는 동물로서의 인간을 지칭하는 것으로 인간의 본능 중 가장 뛰어난 본능이라 할 수 있다. 학습력을 가진 인간은 새로운 그 어떤 것을 만들어갈 수 있는 예지 일탈력을 가지고 있으며 학습의지(The will to learn)를 실현하려고 배움에 의지하는 인간을 의미한다.

인간이 다른 동물에 비해 특징적으로 보이는 최대의 장점은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의 추구이다. 인간은 행복의 추구를 통해서 인간됨의 모습을 드러내려고 하며, 그것은 일상생활의 학습으로부터 시작된다.

1997년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성인교육에 관한 제5차 세계대회의 결의문은 우리 성인교육을 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결의문의 핵심은 성인교육이 세계시민의 학습권이라는 것이다. 성인

교육은 시민의 권리 그 이상의 것이 되고 있다.

성인교육은 21세기를 풀어나가는 열쇠이다. 평생학습사회는 전 세계적인 흐름이자 불가피한 시대적 요청이 되고 있다. 평생학습사회 구현은 앞으로 전국가적 과제가 될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러한 움직임은 1999년 6월 독일 쾰른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에서 발표한 “쾰른헌장” - 평생학습의 목적과 희망-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책 ‘호모 에루디티오’를 추천해본다.

평생교육과 성인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부모교육 강사들이나 자녀가 자기주도적인 학습 습관을 길러 평생 배움을 통한 행복을 추구하기 바라는 부모들이 어렵지만 꼭 한번 읽어 보도록 권한다.

신봉희 (자녀교육관 정립 강사)

### 소식마당

▶ **건강한 가정을 위한 평등가족 아카데미**  
서울시 여성발전기금사업으로 실시된 ‘건강한 가족을 위한 평등가족 아카데미’가 7월 29일부터 8월 24일까지 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이번 아카데미를 통해, 올바른 가족사랑, 행복한 가정에 한 발짝 다가가는 뜻 깊은 시간이 되었답니다.

▶ **건강가정캠프 / 예비부모교실**  
지난 9월 11~12일 1박2일간 송파구에 거주하는 15가정을 대상으로, 송파구청 지원사업 ‘2004 건강가정캠프’가 있었습니다. 9/16~17 양 일간 2:00~3:30에 예비부모교실 ‘준비된 결혼, 준비된 부모’가 있을 예정입니다. 시작하는 연인들, 예비부부 혹은 신혼부부들이 미래의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는 방법 그리고 부부로서, 부모로서의 책임과 역할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을 배워갈 수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 **전국부모교육강사워크숍**  
2004년도 제2차 전국부모교육강사워크숍이 8월 27~28일 1박 2일 동안 청평평림리조트에서 있었습니다. 바다건너 제주도를 비롯해 전국에서 100여명의 강사님들이 참석하여 ‘청소년기 자녀교육을 위한 부모교육프로그램 New 3R’ (청소년교육전략21)과 청소년보호위원회 지원으로 하반기에 전국적으로 실시될 ‘자녀와 함께하는 인터넷’ 교육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첫날밤에는 강사님들의 화려한, ‘음주’가 빠진 ‘가무’ 솜씨를 볼 수 있어

뜻 깊은 워크샵이었습니다.^^

▶ **좋은부모모임**  
8기 좋은부모학교 수료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좋은부모모임’이 8월 30일에 두 번째 만남을 가졌습니다. 송미희(좋은부모모임 회장) 강사님의 ‘독서지도’ 특강이 있었으며, 우리의 보금자리인 1층 부모교육종합센터에서 아주 따뜻하고 포근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다음 모임은, 9월 20일에, 이대근 선생님의 ‘미술을 통해 대화의 물꼬 트기’ 특강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 **학습도외주기워크샵**  
9월 11일(토)에 학습도외주기 강사 워크샵이 있었습니다. 기존 교재에 없었던 새로운 내용 ‘드보노의 여섯색깔 사고’를 다루었으며, 연구위원들이 애써 만드신 알록달록한 교구로 매우 알찬 학습이 이루어졌습니다.

▶ **제9기 좋은부모학교**  
좋은부모학교가 ‘자녀와 함께 더 행복해지기’라는 주제로 10월 6일부터 11월 24일까지 매주 수요일(오전 10시~오후 1시)에 열립니다. 주제는 대화법, 자녀교육관, 환경 및 식생활, MBTI, 예절, 인터넷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가자들이 부모로서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자 부모라는 이름으로 얻을 수 있는 행복의 씨앗을 많이 많이 얻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부모교육 교재 개편**  
부모교육교재가 한층 업그레이드되어 산

뜻하게 바뀌었습니다. 학습자들이 더욱 공부할맛 날 것 같습니다.^^

▶ **부모교육사업 평가직업 완료**  
그간 진행되었던 부모교육평가사업이 드디어 완료되어 평가서가 발간되었습니다. 그간의 부모교육사업 실적 및 현황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되어 있습니다.

▶ **부모교육사례집 ‘초록빛깔’**  
김영자 선생님이 이끄는 좋은부모 학습동아리에서 ‘초록빛깔’이라는 예쁜 이름의 사례집이 발간되었습니다. 행복의 씨앗이 파릇파릇하게 싹을 틔우기 시작한 부모들, 아자아자 핫팅!!

▶ **청소년보호위원회 지원사업**  
‘자녀에게악이 되는 인터넷, 특이 되는 인터넷’ 본회는 올바른 인터넷 교육이 가정에서부터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계획된 청소년보호위원회 ‘자녀와 함께하는 인터넷’ 사업을 위탁받아, 전국 2만 명의 학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총 150회의 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육내용은 인터넷의 폐해와, 이의 예방 및 대처방법, 그리고 인터넷을 매개로 부모와 자녀가 인터넷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내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가비는 없으며, 참가자 전원에게 교재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관심있는 학부모님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구체적인 교육일정과 내용은 [www.bumocafe.net](http://www.bumocafe.net)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별 교육일정 안내 [www.bumocafe.net](http://www.bumocafe.net)



# 좋은 부모

펴낸이 : 부모교육강사회

펴낸곳 :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

☎ 02-4148-119

만든날 : 2004. 9. 11.

## 의사소통의 자유로움

훈련학습의 목표는 자유로워지는 것

운전을 잘하는 사람은 운전 중 발생하는 여러 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능숙한 기술을 갖고 있다. 그렇지만 능숙한 기술만 믿고 자만해져서 주의를 게을리 한다면 운전 중 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다. 운전을 정말 잘하기 위해서는 능숙한 기술만큼 중요한 것이 성실한 자세이다. 인간관계를 맺는 도구인 의사소통 능력도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은 태어나 성장하면서 알게 모르게 의사소통의 기술을 배우고 익혀가고 있다. 좋은 환경에서 바람직한 모델에 의해 좋은 기술을 익히고 살아온 사람도 있고 자신의 선택과는 상관없이 부적절한 환경에서 좋지 않은 기술을 익히고 살아온 사람도 있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기술이 부족하거나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면 기술을 다시 익히고 수정해나갈 필요가 있다. 운전 능력이 하루아침에 키워지지 않는 것처럼 기술은 많은 시간과 연마가 쌓인 만큼 발달한다. 운전 경력이 20년인 사람은 5년 경력인 사람의 운전을 불안해할 수도 있다. 이렇게 기술은 조금씩 조금씩 서서히 숙련되어 가는 것이다. 자동차를 다루는 기술인 운전도 이렇게 시간 차이를 느끼게 하는데 하물며 사람을 다루는 의사소통의 기술을 어떻게 일시에 습득할 수가 있겠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별히 체계적인 의사소통 기술을 익히지 않은 채 살아오고 있고 또 부모가 된다. 따라서 계획된 프로그램을 접하기 전에는 운전기술을 배우지 않은 것처럼 의사소통의 기술에 대한 의식이 없고 일상생활에서 활용하는 방법도 모른다.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건, 인간관계를 잘 하기 위해서이건, 의사소통의 기술을 익히는 첫 단계인 의식

의 변화는 비교적 쉽다. 이론을 이해하고 필요성을 느끼면서 새로운 기술을 쓰고자하는 의식이 생기는 것이다. 아직 이 단계에서는 기술이 숙련되지는 않았다. 의식하긴 해도 실제상황에서 적용이 어렵고 순간순간 대처하는 능력이 키워지지 않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운전을 할 때 핸들의 기능도 알고 브레이크 엑셀레이트의 기능도 알고 있지만 손발이 마음먹은 대로 자유롭게 움직여주지 않는 이치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 상당한 기간 꾸준히 실습을 하면 능숙하다고 느끼는 단계에 도달한다. 기대했던 숙련된 단계이다. 의사소통의 발달도 마찬가지로 꾸준한 노력에 의해 의식과 기술을 체득된 단계에 도달한다. 여기서 발달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목표단계는 의식하면서 기술이 작용하는 단계가 아니고 무의식중에 기술이 발휘되는 단계이다. 운전 중 장애물을 보고 손발을 어떻게 움직여야겠다고 의식하기 전에 무의식적으로 손발이 적절한 반응을 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의사소통의 경우에도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몸에 배어서 무의식적으로 적절한 기술이 사용되는 단계이다. 목표를 달성한 단계이고 도사 단계라고 해도 좋을 듯 싶다.

부모역할을 더 잘하고 싶거나, 인간관계를 더 잘하고 싶다면 의사소통의 기술을 배우고 익혀서 성실하게 사용하는 일에 도전해보면 어떨까. 언젠가는 기술이 능숙해져 자신의 역할에서 편안하고 자유로워져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것에 불안을 느끼지 않고 자유로운 것과 같이.

조무아 (대화법 강사)

## 전국 부모교육 강사 워크숍에 다녀와서

부모교육 강사 위촉을 받고 처음으로 많은 선배 강사님들과 함께 워크숍에 참여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번 워크숍의 주제는 NEW 3R, 즉 청소년기 자녀교육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었다. 마침 우리 집에도 중 1 자녀가 있는지라 관심과 기대감을 갖게 되었다.

NEW 3R이란 Reliable 믿을만한 사람, Responsible 책임지는 사람, Respectable 존경하고 존경받는 사람이란 뜻으로 청소년이 미래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 갖추어야 할 세 가지 덕목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워크숍의 내용은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들을 위해 청소년기 자녀의 특성을 이해하고 자녀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었다.

점심을 먹고 '인간의 위대함'이란 야니의 녹화 연주를 들으며 1박 2일의 워크숍을 열게 되었다.

첫 강의는 이해주 교수의 '청소년 진로와 학습지도' 강의로 학습에서 중요한 것은 동기화임을 강조했다. 동기화가 되려면 먼저 바로 자기 진로에 대한 명확한 지도가 있어야 하며 진로교육의 한 방편으로 자원봉사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자원봉사를 통하여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를 발견하고 구체적인 진로를 찾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학습의 동기화가 된다는 것이다.

오후 강의가 끝나고 저녁시간에는 레크레이션 시간으로 함께 마음을 모아 춤추고 노래하고 (아쉽게도 가무에 음수가 빠졌다) 전국의 강사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마음을 열어 쥘한 선배들의 사랑을, 동료애를 느낄 수 있었다.

다음 날 '내 맘은 이런데 내 자녀는 왜 다르지?'를 느끼기 위한 활동으로 찰흙을 이용하였다. 찰흙으로 자녀에게 주고 싶은 것이나 들려주고 싶은 말을 만들어 보는 것이었다. 나는 내 아이에게 주고 싶은 선물로 신발을 만들었다. 아프리카 속담에 '모카신을 신어보지 않고서는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말이 있다. 즉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을 지니기를 바라는 의미였다.

작품상으로 '풍경'이라는 제목의 작품이 뽑혔다. 진정한 자신과의 만남을 통해 풍경 소리처럼 맑은 삶을 살자는 작품 해석이 멋있었다. 꿈보다 해몽상은 '눈'이라는

작품으로 세상을 바로 보는 눈을 자녀에게 선물하고 싶다는 의미였다.

그러나 진행자는 두 개의 작품을 선물로 받아서 모든 강사들이 보는 앞에서 여지없이 공개버리는 것이 아닌가! 얼마나 안타깝던지... 그것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주고 싶은 따뜻하고 순수한 좋은 마음을 청소년기의 자녀들은 똑같이 느끼지 않는다는 의미였다.

부모의 잣대로 좋은 의미의 충고나 선물보다 자녀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해주는 것을 더 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진정 부모가 내 자녀에게 해주어야 할 것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켜봐주는 것과 자녀를 다양한 눈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워크숍은 활동을 통한 학습으로 구성되어 몸을 통한 학습이 가장 기억에 오래 남는 것임을 체험할 수 있었다. 부모교육 프로그램에서 수강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즐겁고 재미있으면서 동시에 감동과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적인 것들을 배울 수 있었다.

주성민 회장님은 폐회사에서 '... 우리는 함께 살기 위해 배워야 합니다...' 라고 하셨다.

나는 내 아이들, 남편, 그리고 이웃들과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배워야 할 것이다. 1박 2일 동안 워크숍의 원활한 진행을 도와주시고 간식을 준비해주신 실무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김 영 주 (학습도와주기 강사)



## 사랑하는 방법

저는요, 제 자신을 너무 사랑합니다.

멋있고 배울 게 많아서가 아니라 너무나 부족하고 단점이 많아 제 스스로 먼저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저를 사랑해주지 않을 것 같아서입니다. 그러다보니 제 주변 사람들이 소중해집니다. 부모도, 남편도, 아이도, 친구도, 이웃도 그리고 부모교육을 통해서 만나게 된 선생님도 소중하고 사랑합니다.

감정의 늪이 너무나 깊고 넓어서 어느 땐 허우적거리느라 제 존재의 주인이 되지 못했지만 이런 교육을 통해서 저는 제 자신을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변화시키려고 노력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소중하니까요.

많은 사람과 만나고 정을 쌓으며 거기다 대화법까지 배우다 보니 조금 더 친숙한 표정과 어조와 몸짓으로 먼저 사람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악한 사람이 없다 듯이 모든 것이 제 탓이요, 제 시야요, 제 가치관의 응어리였습니다. 조금 더 응어리의 실타래를 풀 수 있도

록 도와 준 선생님과 함께 참가한 엄마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보다 더 노력할게요. 나에게 온 천사 같은 보물, 연재의 엄마로써 정말이지 아이와 함께 성장할래요. 그 아이의 '멘토'가 되고 싶습니다. 전 '멘토'라는 말을 진심으로 좋아하거든요.

어느날 세계 속의 당당하고 사랑 깊은 한국인이 될 아이가 엄마, 아빠께 감사하다며 저도 그렇게 엄마의 모습으로 제 아이를 키우겠다는 말을 듣고 싶네요. 강영우 박사나 장병혜 박사나 박혜란 교수처럼 위대한 엄마의 모습을 그리면서 노력을 하렵니다. 사랑이라는 굴레는 때로는 싫겠지만, 짐스럽겠지만 사랑이라는 이름 하에 저지르는 폭군이 되지는 않겠습니다. 맹세합니다. 그리고 제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모두 사랑합니다.

이금렬 (대화법 프로그램 참가자)

## 배움마당

### 기슴 속 보물을 꺼내 드릴게요

'자녀의 EQ개발'은 엄마와 아이가 함께 행복해지는 힘을 기르는 프로그램이다.

가족 구성원을 동물에 비유해 표현하면서 가족 간에 느끼는 호감과 거리감을 깨닫게 하고 EQ 검사지를 통해 EQ를 구성하는 다섯 가지 능력-정서 인식, 정서 표현, 감정입, 정서 조절, 정서 활용-을 진단하여 엄마가 아이들의 가장 강력한 환경요인임을 EQ 능력별로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매 시간 EQ 각각의 능력에 대한 이해와 상황에 따른 엄마의 대응방법 분석, 그리고 여러 활동 등을 통해 EQ를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배우고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아이들의 활동도 배워본다.

다양한 내용 중 'EQ출석부'라는 활동이 있다. 자신이 이 순간(here and now) 느끼는 감정을 EQ출석부에 나타난 다양한 감정 어휘들 속에서 찾아봄으로써 자신의 감정을 정확하게 인식해보는 활동이다.

한 어머니는 'EQ출석부'에 대한 경험담을 이렇게 이야기 한다.

"처음에는 두 아이가 자신의 감정을 찾는 게 너무 어려운지 그냥 '몰라'라는 말만 했어요. 며칠이 지나자 아이들은 부정적인 감정들을 털어 놓기 시작했지요. 특히

초등학교 5학년인 큰 아들은 기회다 싶었는지 온통 나쁜 감정의 어휘들만 표현했어요. 저는 아이들의 마음을 감정이입하여 이해하려고 애썼지요. 2주일 정도 지난 어느 날 아침, 작은 아들이 졸린 얼굴로 방에서 나오면서 '엄마 나 행복해'라고 하더라고요. 전 너무 기뻐서 '정말이니?' 했더니 아이가 '사실은 별론데 엄마가 그래야 좋아하잖아'라고 했어요. 작은 아이는 뒤따라 나오는 자기 형을 바라보면서 말했어요. '형, 형도 행복하다고 해'.

저는 알았어요. 작은 애는 자신의 기분이 별로임을 인식(정서인식 능력) 했지만 그렇게 말하면 엄마 마음이 아플까 봐(감정이입 능력) 자신의 감정을 조절, 전환(정서조절 능력, 정서활용 능력)하여 '엄마 나 행복해'라고 표현(정서표현능력) 했다는 걸요."

EQ 프로그램은 엄마가 자신을 제대로 이해하고 조절하며 동기화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깨달아 얻게 된 POWER로 무엇을 해야 할지, 왜 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아이들의 무한한 내면을 일깨우는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할 것이다.

권희정 (EQ 연구회장)